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8차 회의
12월 23일 광주일보 14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8차 회의가 지난 23일 광주시 동구 광주일보 1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하 위원장을 비롯한 조미옥·이묘숙·강대석·김남기·임효택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다.

‘리뷰 2015’ ‘작심 365’ 코너 독자들에게 공감·용기 북돋워 줘

▲강대석=12월 한 달간 눈에 띄는 기사가 있다. 지난 14일부터 5회에 걸쳐 연재된 ‘리뷰 2015’에서 광주U대회 성공개최부터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굵직한 사건과 현황들을 심층보도해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었다.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이었다.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저물급 인사 광주가면...’ 사설 시의적절
‘Inside 전남’ 홍보성 기사 지나쳐

김남기 광주도시공사 전문위원·서화가



1면 제호 옆에 사훈·슬로건 붙였으면
고객 만족도 조사 통해 독자의견 청취를

‘블루오션 다도해’로 섬의 낭만을 접해왔는데, 섬 주민들의 불편과 난개발에 대한 명암을 놓치지 않았다.

또 11월27일자 17면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활용하세요’는 언론이 주는 좋은 정보로, 소비자 면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따뜻한 기사 발굴을 요청했는데, 22면에서 나눔의 문화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기부와 나눔문화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편안한 나눔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일보가 주도하고 있어 바람직하다.

26일자 3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개관과 관련한 기사들이 있었다. 문화전당이 세계를 지향한다는 이유로 지역의 정서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광주일보는 아시아 문화 원류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다. 이 자료를 활용해 지역과 연계시킬 수 있을지 광주일보만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도심 외곽에 살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기가 힘들다. 도시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나 시의회, 시민의 의견이 모두 다르다. 여론을 수렴해 시와 시의회에 건의하고, 촉구하는 기사들을 부탁하고 싶다.

연말을 맞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심 365’ 코너도 독자들이 공감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사였다. 직장인에서 목수로 변신한 박상일씨부터 광주일보 김지를 기자의 금연 성공기, 청과물 상인 김선우씨의 절주 성공기 등은 인상적이었다. 서민들이 연초에 계획했다가 작심삼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성공기를 읽으면서 공감과 용기를 한번에 얻을 수 있었다. 흔하지만 독자들이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재밌는 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도박이나 오락은 물론, 성공기가 아닌 실패담도 싶으면 좋겠다.

지난 21일 정부 개각과 관련, 22일자 1면에서 현 정부의 마이웨이식 지역편중 인사를 꼬집었다. 23일에는 사설 ‘아무리 저물급 인사라도 광주 가면 죽는다?’에서도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 지역민심을 대변하는 대표언론으로서 시의적절한 사설이었다.



조미옥 빛가람중학교 수석교사

‘학교 냉난방기 오염 심각’ 기사 충격
교육분야 기사 발굴 더 관심 가져달라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11일자 1면 섬島 아프다 편집 눈길
22면 나눔의 문화 집중적 다뤄 좋아

▲김윤하=광주일보의 수상소식이 잇따라 들려와 기쁘다. 광주·전남기자협회에서 장필수 사회부장이 당선됐다는 소식도 접했다.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언론기능 활성화에 광주일보가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 최근 생활 속에서 느낀 점은 예전보다 광주송정역에서 KTX 이용객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주말에 표를 구하는 것조차 힘든데다,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다. 초기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왔던 만큼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이런 현상이 빛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또 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한 전일빌딩이 물로 변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마련에 대한 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전을 앞두고 민심이 혼란스럽다. 지역의 여론을 잘 모아주는 역할을 해달라. 또 지면의 신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오타자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늘 지역의 대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 감사하다. 새해에도 이 여세를 몰아 활기 넘치는 제작을 부탁한다.

하지만, 한번쯤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안이 있다. 바로 지역면인 ‘Inside 전남’이다. 전남지역 곳곳의 소식을 전해주는 지역면이 어느새 ‘홍보의 장’으로 변한 것 같다. 대다수 독자는 지자체나 기관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뛰는 생생한 소식을 듣고 싶어한다. 광주에서만 좋은 기사를 발굴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남 지역의 문제들도 날카롭게 꼬집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길 바란다.

▲김남기=광주일보 1면 제호 옆에 사훈이나 슬로건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광주일보가 지향하는 방향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제안한다.



김윤하 전남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임효택 동일전자정보교과 교감



아마추어 스포츠 발전 밑거름
지역 초중고 선수들 응원해 주길

▲임효택=1일자 7면에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알려주는 기사는 지역의 중·고교별 학력 실태를 엿볼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왜 공·사립학교의 격차가 지속되는가?’라는 의문과, 5개 구별 학교간 차이점 등을 심도있게 분석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하면서도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겨울이 오면서 프로야구와 축구 소식이 스포츠면에 많이 실린다. 하지만 아마추어 스포츠가 발전해야 지역 스포츠스타를 발굴할 수 있다. 겨울임에도 내년 시합을 위해 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지역의 중·중·고교 운동 선수들을 찾아가 응원하고, 미래의 스포츠스타를 조망하는 등 기사발굴에 힘써달라.

지난 22일자 22면에서 ‘초등생 537명 우리도 작가됐어’라는 기사를 봤다. 어릴 때 체험을 통한 교육은 성인이 됐을 때 보다 효과적이다.

교육현장에도 이같은 체험·체득형 교육이 많아지길 바란다. 광주일보가 일회성이 아닌, 다양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기사발굴에 힘써달라.

현재 호남지역에서만 7개 정파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왜 호남만 분열되는가? 너무도 안타깝다. 호남지역은 늘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필요하다. 당과 색깔이 아닌,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호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얼마 전 한 통계기사를 봤다. 오는 2022년까지 사라지는 직업 10개 중 신문기자가 4번째에 있었다. 온라인 매체가 등장한 뒤 점차 종이매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독자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광주일보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독자들의 고충이나 의견, 제안 등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조미옥=지난 16일자 5면 ‘학교 냉난방기 오염 심각...’번기수절보다 심해’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도였다는 평가다. 해당 기사가 실린 이후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꾸준히 지켜보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또 15일자 6면 ‘광주 내년 유아교육 대란 오나’ 기사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인 우울한 젊은이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유치원 누리예산마저 삭감되는 상황을 보니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다. 교육이 살아야 삶의 질이 향상된다. 젊은 세대가 자녀 교육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광주일보가 교육분야 기사발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달라.

우리나라에서 만18세의 청소년들은 군입대도 가능하고 운전면허는 물론, 결혼과 공무원시험도 치를 수 있는데, 투표만 불가능하다. 세계 234개국 중 216개국에서 청소년들의 투표가 가능하다. 이런 기사를 사실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청소년들

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희망을 배달하는 기사가 결국 언론의 힘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22일자 16면 ‘태극기, 예술이 되다’는 경건함이 먼저 떠오르는 태극기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일깨워준 기사라고 생각한다. 독자로서 발 빠르게 좋은 정보 제공해줘서 좋았다. 이런 모습을 새해에도 꾸준히 보여주길 바란다.

▲이묘숙=지난 한 달간 편집이 좋았다. 11일자 1면 ‘섬島 아프다’에서 조사인 ‘도’를 한자로 살려 눈길을 끌었다. 최근 시리즈

/정리=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7-story commercial buildings, including details on floor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010-7384-7800).